

새싹편지 9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9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국제 심포지엄



9월 17~18일 이틀간 우송대학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우송 유아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동아리별 전시는 우송유치원 내 정례원에서, 특강과 연구 발표는 우송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7일 2시에 교수회의실에서 개회식으로 국제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렸다.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2시 30분부터는 남경효장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유아교육의 이념 및 전략-남경효 장대학교의 경험을 통하여’ 라는 주제로, 그리고 안휘 사범대학교 부속 유치원 원장님께서 ‘교육은 생활 속 에서-안휘사범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육과정소개’ 라는 주제로 강연 하셨다. 3시부터는 권기연 학생이 ‘예술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하금해 학생이 ‘한국과 중국 유아교육기관의 전통놀이 교육현황 및 교사 인식’ 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후 오오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일본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셨다. 4시부터는 우송유치

원을 참관을 5시엔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선포식을 했다.

18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 박은혜 교수님께서 ‘놀이와 공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고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 캐롤린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하셨다. 12시부터는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산업체 기관장 협의회 및 오찬이 열린 후 우송 유아교육 국제 심포지엄은 성공리에 마쳤다.

우송 유아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우송유치원 주변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과 유치원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었고, 우송유치원 내 정례원에는 동아리별로 활동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9시부터 6시까지 이틀 동안 국제 심포지엄에 여러 유치원 원장님들과 일본, 중국 유아교육과 교수님, 유아교육과에 관심 있는 고등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관심을 보였다.

체육대회

9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유아교육과와 철도건설시스템학과가 한 팀이 되어 체육대회를 하였으며 유아교육과와 철도건설시스템학과의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하며 체육대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발야구와, 5인 6각, 계주는 안타깝게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피구, 줄넘기, 농구, 씨름 등의 경기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며, 다른 선수들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인 응원으로 응원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유아교육과와 철도건설시스템학과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으며, 높은 스포츠 정신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

피카소와 천재 화가들



9월 11일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하는 “피카소와 천재 화가들” 전시회를 보러 갔다.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로, 전시 구성은 Desire-이상을 꿈꾸며, 선구자가 되다, Look-피카소와 입체주의, Feel-색채의 향연, 향기로운 추상으로 이루어졌다.

화가 피카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한 고야, 후기 인상주의파 반 고흐 등 유명 천재 화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유롭게 미술작품들을 감상했는데, 거장 68인의 명화를 통해 고전주의에서 현대 추상 표현주의까지 서양미술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여러 작품을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감상하면서 마냥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닌 그림의 특징과 다른 작품의 차별된 점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간 중간 미술관 벽에 화가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 생애에 따른 또 다른 작품들이 작게 전시되어 있어서 그 화가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알 수 있었다. 나오는 길에 포토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명화를 감상하고 난 뒤 감상한 작품 속에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혼자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알기엔 자칫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알차게 명화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U-SONG의 솔파인 공연이야기



9월 17일에 우송대학교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U-song 동아리가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우쿨렐레 연주를 하였다. 이 공연을 한 느낌을 U-SONG의 손지원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9월 5일부터 행사 바로 전날까지 꾸준히 모여서 연습하느라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기억에 남을 무대를 꾸민 것 같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더 컸다. 이번에 우쿨렐레 연주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조화로움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눈에 튀어서도 안 되며 뒤쳐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5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멋지고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몇 배의 연습이 필요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연주하는 것이었다. 5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멋지고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몇 배의 연습이 필요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연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연할 때는 앞에 계신 분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활짝 웃으면서 연주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이번에 우쿨렐레 연습을 하면서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고, 새로운 노래를 다양한 언어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대다수 부모가 알고 있는 유아의 지능은 IQ나 EQ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아의 지능 발달의 고정관념을 깬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가드너(H. Gardner)이다.

가드너는 유아의 지능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주장했다. 다중 지능 이론이란, 기존에 있던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이전의 획일주의적인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수학적 지능이 높거나 언어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약기를 잘 다루거나 대인관계도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유아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뛰어난 지능이 있기 마련이고, 성인은 유아의 장점을 더 살려주고 약점인 지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체적인 지능의 조화를 이루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유아 교육에서 강조하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다중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아는 놀이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유아의 약점을 고려한 학습주제를 흥미로운 놀이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중지능이론을 정확히 알고 교육한다면 유아도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자라나는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꾸로 수정법

최근 들어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과 동영상 강의식 가정 학습이라는 이른바 '거꾸로 수업'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공부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집에서 동영상 시청한 후, 수업시간에 동영상에 대해 알아보는 유형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내용의 숙제를 내주면 수업시간에 숙제로 시청한 동영상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풀며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소통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강의를 녹화하시고 학생들이 강의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에는 시청한 강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말하며 학생중심의 강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주목받을 수 있으며, 성적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인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은 사고력, 집중력, 문제해결력을 길러 성공적인 교육학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송유치원 소식

민속의 날



우송유치원에서 9월 5일에 ‘우리나라·세계 여러 나라’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먼저, 다가오는 추석에 맞이하여 유아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고 먹어보면서 추석의 대표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물건과 놀이에 대해 알아보며 유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자 집에서 호롱불이나 엽전과 같은 옛날 물건들을 가져오고,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그 나라의 의복을 가져와 전시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17일에는 우송대학교의 6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송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들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셨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민속의 날을 맞이하여 우송유치원에 민속·전통놀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하였고 꼬마야 꼬마야, 구슬치기, 팽이치기, 사방치기, 윷놀이 등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직접 해보았다. 또한, 떡메치기를 하여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 행사도 하였다. 오후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만 3세 유아들은 손 치기 하세, 만 4세는 우리 체조와 진도 아리랑 율동을 선보였고 만 5세는 강강술래와 덕성 물자 공연을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도 사물악기 연주 공연을 선보이며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박명옥 김유리
 김예슬 손혜원 박지원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강현아

